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깨닫고 보면, 자기가 찾고 애원하고 기도했던 자가 섭리사에 와서 같이 살고 있다.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라.
2. 깨달으면, 자기가 그렇게도 찾고 원하던 사람도, 사물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깨달았으니,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적으로 만들면, 최고가 되어 최고로 보인다.
3. 자기 마음과 생각의 차원만큼만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산다.
4. 최고의 것을 얻었어도 마음과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그 차원만큼만 느낀다. 마음과 생각의 차원, 영적 차원을 무한대로 높여야 무한대로 보고 느끼게 된다.
5. 영적으로, 성령으로 보아야 원한 것을 제대로 얻게 되고,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이 최고 차원의 것을 주셨어도 육적으로 보고, 육의 차원의 눈으로 보면 보통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통으로 느끼게 되고, 보통으로 기뻐하게 되고, 보통으로 대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쁨도 만족도 없이 살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된다.
7. 구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존재하는 데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 다른 데서 찾아도,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다.